

상원고 '3위 입상'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대회

대구상원고등학교(교장 유진관)은 럭비팀이 지난달 18일(목)부터 전남 강진하멜구장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다.

상원고는 1차전에서 명석고를 상대로 41:19로 승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팀의 에이스인 3학년 센터 정은성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 2차전 경기에서 백신고를 64:0으로 압도하며 4강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지난 전국대회 우승팀인 서울 배재고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15:19로 아깝게 패배하며, 3위 입상에 그쳤다.



이번 대회의 성과는 상원고 럭비팀이 동계 일본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럭비 심판법 강의 및 포지션 강화 훈련 등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결과 4

강에 진입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다가오는 대한 럭비협회장과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럭비팀 주장 조 한 선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3위 입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 응원해 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대한럭비협회장과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료제공:대구상원고등학교>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엄마의 기차여행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

CHANNEL J

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 케이블 57-1

2025학년도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 설명회

대구·경북권 최초 대구전자공고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재도약!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유병원)가 2023년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방침에 따라 대구·경북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가칭)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이하 '대구반도체고')로 새롭게 태어난다. '대구반도체고'는 2025학년도 신입생 총 6학급 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산학점입교사와 정규교사 간 팀 티칭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제어, ▲생산·품질 관리, ▲반도체 장비 제작, ▲유지보수 등을 배우게 된다. <자료제공: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화원고, 여름 E-day 독서캠프

대구화원고등학교(교장 오순옥)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달 22일(월)~26일(금)까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캠프'를 운영했다. 다독다독도서관(화원고 도서관)은 '다문화'를 주제로 ▲'느티나무수호대' 읽고 서평 쓰기, ▲친구가 추천하는 도서 읽기, ▲밴드공연을 통한 다문화 교류하기, ▲영화화된 원작 도서 읽고, 영화 감상 후 비교 분석하기 등 5일간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료제공:대구화원고등학교>